

## 먼 이역에서 만난 '상우친고'

사무엘 존슨과의 시공을 넘는 만남

정정호 | 중앙대 영문과 교수

1983년 가을이었다. 나는 영국 중서부 요크셔주의 리즈에 살고 있었다. 나는 브리티시 카운슬 장학금을 1년간 받고 리즈대에서 18세기 영문학을 공부하는 연구생이었다. 어느 날 대학 근처의 헌책방에 들렀다. 그 책방은 작고 피죤한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오래된 헌책 냄새가 좋아서 자주 들렀다. 책방 주인은 후덕하게 생긴 노인이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책방을 운영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책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그날따라 나를 강렬하게 끄는 책이 있었다. 장정도 고풍스럽고 품위 있게 보였다. 그 책은 바로 영국 18세기의 대문인이며 비평가였던 사무엘 존슨(1709~1784)이 쓴 《영어사전》의 축약판이었다. 1815년 런던에서 출간된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1815년이면 존슨이 죽은 지 불과 30년 후가 아닌가? 그와 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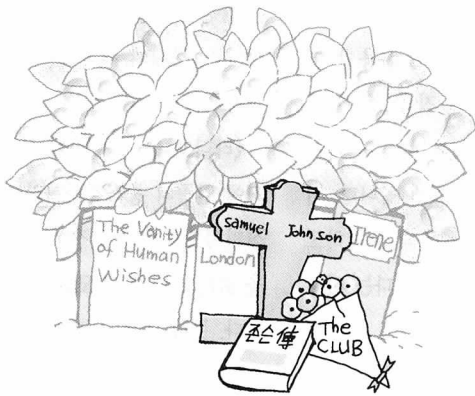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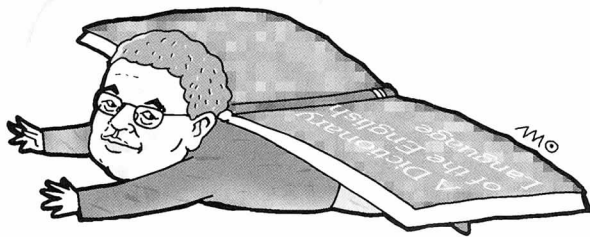
까워짐을 느꼈다. 값을 물었다. 20파운드였다. 20파운드! 당시 나는 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20파운드는 큰 돈이었다. 그만한 책의 가격을 따지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한참동안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나와 버렸다.

존슨과 나의 편안한 관계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미적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묘한 감정의 흐름 속에서 밤새 뒤척이다가 오히려 그 사전을 통해 존슨과 더 가까워지기로 결심했다. 이튿날 아침에 책방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 그 사전을 사버렸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가슴에 소중히 품고 대학도서관 지하층에 있던 나의 작은 연구실에 가서 혼자 그 책을 여기저기 펼쳐보고 쓰다듬고 냄새도 맡아봤다. 이때부터 나와 존슨 사전과의 '정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후 나는 이 사전을 내 공부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놓고 수시로 만져보고 뒤적거렸다.

사실 존슨의 이 사전은 18세기 이전 영문학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다. 이 사전의 최대 특징은 세계 최초로 단어의 뜻만 제시하지 않고 유명한 작가나 사상가들의 글에서 직접 예문을 뽑아 실었다는 점이다(현재 전세계적으로 완벽한 영어사전으로 평가받는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도 사실은 존슨의 사전방식을 따른 것이다). 존슨의 영어사전은 단순히 어휘사전이라기보다 수많은 인용으로 가득 찬 일종의 문학 백과사전이다. 간혹 뜻만 찾아보는 사전이 아니라 언제나 유익하고 재미있게 읽는 사전이다. 이 사전 때문에 존슨은 '사전 만든 존슨'(Dictionary Johnson)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가난으로 중퇴한 옥스퍼드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존슨 박사'(Dr. Johnson)가 됐다. 후일에는 이 사전뿐 아니라 다른 탁월한 문학적 업적이 인정돼 당시 영국 왕 조지3세로부터 매년 300파운드의 연금까지 받게 됐다.

내가 사전을 산 이듬해인 1984년은 마침 존슨이 서거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런던-옥스퍼드-리치필드(존슨이 태어난 곳)에서 5월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에 존슨 국제심포지엄이 일주일간 열렸다. 나는 운 좋게도 브리티시 카운슬의 도움으로 이 심포지엄에 한국대표로(?) 참석할 수 있었다. 리치필드에서 존슨이 태어난 집과 아버지가 책방을 하던 건물을 방문했다. 옥스퍼드에서는 존슨이 다녔던 펍브르크대에 수십편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25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나는 당시 중공에서 온 존슨 학자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일본에서 대거 10여명이 참석해 깜짝 놀라기도 했다.

런던에서는 존슨이 살았거나 그와 관련된 지역들을 답사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역시 존슨이 5명의 조교를 데리고 사진을 만들었던 거프스퀘어의 큰 다락방이었다. 당시 사용하던 책상이나 자료들이 그때까지 잘 보존돼 있었다. 그후 나는 가족과 함께 스코틀랜드를 여행할 때도 존슨이 쓴 기행기를 읽고 참조했다. 나는 존슨이 쓴 글과 존슨에 관한 많은 책과 자료들을 모았다.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 대학에서 나는 존슨의 문학비평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고 박사학위도 받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존슨 연구자 또는 존슨주의자(?)가 됐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존슨은 이 경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알기 위해 색인표를 만들어 놓고 그의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어떤 날에는 아예 존슨선집과 존슨전기를 머리맡에 놓고 읽다가 잠들기도 한다. 존슨은 처음에는 나의 스승이었으나 이제는 나의 친구가 됐다. 존슨도 저 세상에서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최근 정 민 교수가 번역한 연암 박지원의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내고 무릎을 쳤다. 그것은 '상우천고'(尙友千古)라는 말이다. 우선 연암의 글을 읽어보자.

“옛날에 벼를 말한 자는 벼를 두고 '제2의 나'(第二吾)라 하기도 하고 '주선인'(周旋人)이라고도 했다. 이런 까닭에 글자를 만든 자가 '우'(羽)자에서 빌려와 '붕'(朋)자를 만들고 '수'(手)자와 '우'(又)자로 '우'(友)자를 만들었으니, 세에게 두 날개가 있고 사람이 양손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천고(千古)의 옛날

을 벗삼는다'고 한다. 답답하구나, 이 말이여! 천고의 사람은 이미 화하여 흩날리는 티끌이나 서늘한 바람이 되었는데, 그 장차 누가 나를 위해 제2의 내가 되며 누가 나를 위해 주선한단 말인가?”

죽은 자와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유령을 불러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연암의 '벗'에 관한 해석은 재미있다. 벼를 새의 양날개와 사람의 양손으로 비유했다. 싱싱한 물고기의 빛나는 비늘처럼 상큼한 비유다. 벗이 있어야 새처럼 날 수 있다. 비상은 우리의 영원한 꿈이며 위대한 탈주의 선이 아닌가? 벗이 없으면 한손처럼 무력해진다. 한손으로는 기쁨의 손뼉도 칠 수 없고 누구를 잘 포옹할 수도 없다. 벗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 '제2의 나'다. 벗이 없으면 나의 일을 주선해주는 사람도 없어진다.

존슨은 이제 나의 친구로서 나의 두 손이요 나의 양날개다. 그는 나의 모든 일을 주선해 준다. 연암은 주위에 친구가 없어 옛 사람들을 친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으나 나는 오히려 25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천고의 고인인 존슨을 벗으로 삼은 것이 기쁘다.

내가 학자로서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의 오랜 벗 존슨의 시구절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다음은 존슨의 시〈인간 소망의 헛됨〉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학자들의 생활과 운명을 묘사한 부분이다.

“지나가는 세상 위로 겸손하게 너의 눈을 돌려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쉬면서 현명해져라.  
세상에는 어떤 고난이 학자의 생활을 괴롭히는지 보아라.  
힘든 공부, 질투, 궁핍, 다락방 그리고 감옥이 학자의 몫이다.  
사람들은 느리게 현명해지고 비열하게 공정해진다.  
죽어 문헌 다음에 뒤늦게 그 업적을 기려 흉상을 세운다.  
그래도 허망한 꿈들이 너를 유혹하면 다시 한번 상기하라.  
리아트의 비참한 삶과 갈릴레오의 최후에 관해 들어라.”●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design partner darum

## 더 좋은 디자인만을 고집하는 다름의 새얼굴입니다

이제 막 산 하나를 넘은 듯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디자인만을 고집하며 걸어온 노력이  
더 큰 산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다른 다름의 시작입니다.  
새마음, 첫마음의 각오로 다름이 도약합니다.

다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